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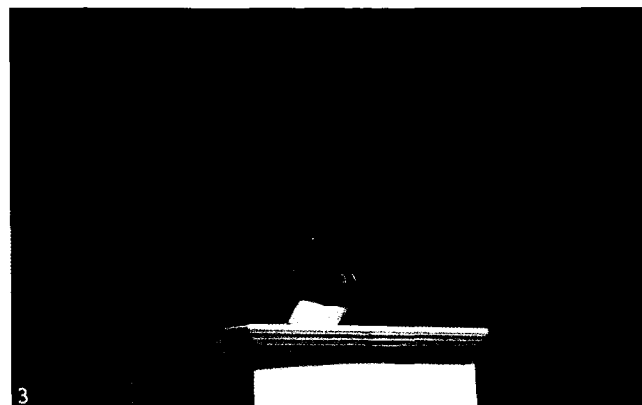
이철
신임대표이사
취임식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안정 속의 성장 이룰 것”



에이스기계(주)(대표이사 이철)는 지난 3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라마다송도호텔 다빈치홀에서 이철 신임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목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원창인쇄기계 김하일 회장, 한국아사히마시나리 이상희 사장을 비롯한 300여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철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원창인쇄기계 김하일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김기태 총괄이사, 베트남 법인 담당 이주석 이사 등 공로직원에 대한 시상과 축하케이크 절단식, 건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 순서로 뷔페식으로 점심이 준비되었으며 행사 시간동안 이철 대표의 아들과 친구들로 결성된 밴드의 축하 연주가 진행되었다.

이철 대표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지난 80년 이후, 인쇄산업과 인연을 맺으면서 당시 원창상사에서 가장 젊은 영업부 직원이자 영업왕을 오랫동안 차지했었다



1 취임식에 참석한 하객들
2 협력업체와 공생을 약속한 이철 대표이사
3 이철 대표이사가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며 “새로 대표로 취임한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 고객들께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동안 내용적으로 국내외에 걸친 사업과 회사 전반의 관리에 드러나지 않게 관여해 오던 것을 대표 취임을 계기로 전면에 부상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에이스기계를 있게 한 시그니처도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어 만든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인쇄산업도 기술력을 길러 수출을 하고 싶다는 예전에 꿈꾸었던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욱 더 빠른 개발과 노력을 통해 고객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요 내빈을 대표한 축사에서 원창인쇄기계의 김하일 회장은 “25년여 전에 이철 대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며 “젊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맺고 끊는 것이 확실했던 이 철 대표는 거목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정도로 비범함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롭게 취임한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성장해 나가는 에이스기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일반적인 화환을 대신하여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기증하는 쌀 화환을 대신 받아 함께 나누는 경영을 실천 취임식의 의미를 더했다. 공로직원 시상에는 김기태 총괄이사, 베트남 법인의 대표인 이주석 이사 등 여러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창업 20년을 맞이하는 에이스기계는 국내외에서 품질이 뛰어난 접착기 생산업체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이후 베트남에도 연면적 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더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